

아리셀 참사 유족들, 법률 투쟁으로 방식 전환 “개별합의, 처벌불원 없어... 끝까지 싸울 것”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12.26 11:39

“사과 한마디 없는 에스코넥과 끝까지 싸우겠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투쟁 문화제 "끝까지 싸운다"가 24일 오후 5시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참사 주범' 에스코넥이 참사 유족들을 대상으로 개별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맞서, 유족들은 "개별합의도, 처벌불원서도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법률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유족들(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과 아리셀참사 대책위는 참사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교섭 거부만으로 일관하는 에스코넥을 대상으로 집단 민사소송, 형사재판 투쟁 등 법률 투쟁으로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진행됐던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추모제 진행은 중단한다.

에스코넥은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유족에게 개별접촉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흔들림없이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와 배보상을 촉구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투쟁 문화제 "끝까지 싸운다!"가 24일 오후 5시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투쟁 문화제 "끝까지 싸운다!"가 24일 오후 5시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참사 184일 째를 맞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유족들과 연대자들이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문화제를 갖고 그간 함께 싸워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송성영 대책위 공동대표는 "참사에 희생된 이들의 이웃이 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참 예수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더 크고 강력한 연대를 호소했다. 민중가수 류금신, 지민주와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문화공연이 있었다.

이후에는 '함께 투쟁해온 동지들'이 발언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6개월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 눈과 귀를 다 스쳐 지나가면서 함께했다. 우리 투쟁으로 아리셀 참사 규명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자"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유족분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함께하는 분들 믿고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족분들이 진정한 사과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투쟁 문화제 "끝까지 싸운다!"가 24일 오후 5시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끝으로 유족들이 발언했다. 피해가족협의회의 이순희 공동대표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만은 여기에 오신 분들께 소리높여 외치고 싶다. 우리는 처벌불원서 절대 써주지 않는다.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과, 재발방지, 진상규명이 되는 그날 까지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족 여국화 씨는 "여름부터 싸워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끝까지 싸운다'는 문화제 이름처럼, 우리의 싸움은 끝난것이 아니다. 아리셀 참사는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 더 큰 연대와 지지 부탁드린다. 끝까지 우리 옆에서 있어달라"고 당부했다.

유족 최현주 씨는 "지난 6개월간 울고 분노스럽고 희망을 보기도 했고, 절망했고 절규했다. 평생 느껴야할 감정 다 느낀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 재발방지, 사과와 배상인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투쟁 방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연대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원을 적어 걸고, 유족들과 줄지어 포옹했다. 유족들은 내년 1월 집단 민사소송 투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러 예정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투쟁 문화제 "끝까지 싸운다!"가 24일 오후 5시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렸다. 사진=송승현



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